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문을 하는 사람은 독서할 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이 있다면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을 하면 남고,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기록하고 다시 생각하고 해석하면, '앎과 깨달음'이 더욱 자라나서 말과 행동이 두루 통하게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앎과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과 행동은 딱 막히게 되어, 얻었다 해도 반드시 다시 잃게 마련이다.

성현(聖賢)들은 도리를 닦고 언론과 법규를 바로 세워 천하와 후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성인의 말을 외우고 그 뜻을 깊게 생각해 볼 때에는 가슴에 가득 쌓여 있는 기운과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부딪친 다음에야 그 뜻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얻고 난 다음에는 또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장차 도리를 전하고 말을 풀어 놓아 '앎과 깨달음'을 일으키고 말과 행동을 두루 통하게 해서 길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치와 뜻은 똑같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한 사람의 지식만으로는 두루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얻은 지식으로 미루어서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깨달음을 발휘해 말을 가리고 생각을 깊게 해야 한다. 이는 성현의 마음이고 학문과 독서를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 윤희, 「독서기서(讀書記序)」 -

(나)

독서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사물에 유혹당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연구하여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마땅히 자신이 행할 도리가 분명히 나타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천하의 도(道)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물의 이치를 깊게 궁리하고 연구해야 한다. 사물의 이치를 깊게 궁리하고 연구할 때 독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옛 성인과 현자가 마음을 쓴 발자취와 세상만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및 경계해야 할 내용이 모두 책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독서하는 사람은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공경하는 마음으로 책을 대해야 한다. 마음을 한곳으로 집중하고 뜻을 다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사고하고,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읽고, 깊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글과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지 입으로만 읽고 마음속으로 얻지 못하고 몸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슨 이로움과 유익함이 있겠는가?

- 이이, 「독서(讀書)」 -

1. (가)와 (나)의 글쓴이가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독서의 목적'은?

- ① 당대 사회의 지배 이념을 비판하는 것
- ② 휴식을 취하면서 정서적 안정이나 즐거움을 얻는 것
- 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 ④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 ⑤ 글속에 담긴 의미를 깨우쳐 세상의 이치에 통하게 되는 것

2. (가), (나)를 읽고 '독서'에 대해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독서를 통해 '앎과 깨달음'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①
- 독서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며, 생각한 것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②
- 온 마음을 쏟아 독서에 집중해야 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③
- 독서할 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하며, 깨달은 바가 있으면 실천해야 한다. ④
- 독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난관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서 상황에 맞게 읽을 책을 선정해야 한다. ⑤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삼아(三兒) 점점 자라 십 세에 미치매 절세한 용색과 선연(嬋妍)한 품성이 비상특이하고 문견(聞見)이 통하고 민첩하여 시서백가(詩書百家)에 모를 것이 없고 매양 후원에서 조약돌로 진(陣)을 벌이며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익히거늘 왕씨 알고 가장 민망히 여겨 삼녀를 타이르며 왈,

“여자의 도(道)는 내행(內行)을 닦으며 방적(紡績)을 힘써 규중 외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너희는 어찌 외도(外道)를 행하여 고인에게 득죄함을 감심(勘審)코자 하는가? 우리 팔자 무상하여 너희 셋을 얻으매 비록 여자나 어진 배필을 얻어 우리 사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 이제 너희 조금도 규녀의 행실을 생각지 아니하니 이는 사리에 맞지 않아 남들이 알게 해서 는 안 됨이라. 만일 네 부친이 아시면 특별히 대죄할 것이매 내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니 너희 소견은 어떠하뇨?”

삼소저 이 말을 듣고 대경 사죄 왈,

“소녀 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리오마는 소녀 등이 규방의 소소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를 뵈올 길이 없사온지라. 옛날에 당 태종의 누이 장원공주도 평생 무예를 배워 천하에 횡행하여 빛난 이름이 지금 유전하오니 소녀 등도 이 일을 본받아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顯揚)코자 하옵고 하물며 방금 천하 크게 어지러우매 소녀의 득시지추(得時之秋)* 이어늘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이꼬.”

하니 왕씨 듣기를 마치고 삼녀 의지 굳건하고 정해진 마음이 비속함을 보고 어이없어 다만 탄식뿐이러니 그 후에 삼소저 또 후원에서 무예를 익힐새 유생이 다다라 보고 대경하여 궁시와 병서를 다 불지르고 왕씨를 몹시 꾸짖으며 왈,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본받나니 여아의 행사를 엄하게 단속하는 일이 없음은 이 어쩐 일이뇨? 일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지간이라도 결단코 용서치 아니 하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하고 가출한 삼소저(자주, 벽주, 명주)는 최완, 최진, 최경과 형제를 맺는다. 진원 도사에게 수행을 마친 육 인(六人)은 조광윤을 찾아 섬기기로 한다. 한편, 북군이 변방을 침노하자 육 인과 조광윤은 원양성을 뺏기 위해 전투를 벌인다.

차설. 육 인이 원양성 십 리에 주둔하고 계교를 의논할 새 명주 왈,

“① 여차여차 하면 어떠하뇨?”

최완이 대희 왈,

“그대 말이 정히 내 뜻과 일반이라.”

하고 명일 이른 아침에 최완과 명주 각각 변복하고 원양성하에 나아가 크게 불러 왈,

“아등(我等)이 태수께 고할 말씀이 있노라.”

하니 수성장 장임이 친히 문루에 올라 바라본 즉 양인이 손에 병기 없이 황망한 낯빛으로 성하에 이르렀거늘 장임이 이르되,

“여등(汝等)은 어떤 사람이완대 성에 들고자 하느냐?”

양인(兩人)이 왈,

“아등은 절강에 사는 백성이러니 장군께 고할 말씀이 있으며 문을 열어 주소서.”

하거늘 장임이 그 용모 행동거지를 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여 즉시 영을 내려 문을 열어 들이니 양인이 천연히 들어

와 장하에서 읊고 왈,

“아등은 원래 물화를 가지고 태원성에 와 환매하여 자생하더니 대원수 조광윤이 물화를 다 앗고 우리로 하여금 호풍령을 지키어 우리 만일 성공치 못하거든 인하여 죽이라 하니 우리 본래 창검과 궁시를 모르거늘 어찌 이 소임을 당하리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헤아림에 마지못하여 장군께 항복하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나 만나 보고자 하여 왔나니 장군은 어여 뻘 여겨 잔명을 구하심을 바라나이다.”

하거늘 장임이 청파에 의심치 아니하고 장에 올리고 술을 내와 관대하니 부장 원견이 간(諫)왈,

“양진이 상대하매 천만 가지 계교로 진중 허실을 탐지하거늘 장군은 어찌 차인 등을 이같이 믿어 그 진위를 살피지 아니 하느냐. 익히 생각하여 타일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

하니 명주 읊 왈,

“우리 전혀 장군을 부모같이 바라고 투항하였더니 이제 이렇듯 의심하매 가위 진퇴유곡이라. 차라리 장군 앞에서 죽어 냅이라도 장군을 의지하리라.”

하고 말을 마치고 허리춤으로부터 단검을 빼어 자결코자 하거늘 장임이 급히 만류 왈,

“원수의 말이 당연하거니와 그러나 그대 사정이 이 같은 즉 어찌 다시 의심하리오.”

하고 양인을 머물러 주육으로 정성껏 대접하더니 수일이 지난 후 최유 양인이 장임더러 왈,

“우리 대장 석수신이 조빈의 심복이라. 일을 지체하면 후환이 되리니 삼일 후 장군이 병을 거느려 진을 ㉠ 여차여차 덜 치면 아등이 합력 내응하리라.”

하고 돌아가려 하더니 장임이 응낙하고 즉시 보내니라.

차설. 양인이 본진에 돌아와 거짓으로 항복한 소유를 이르고 땅굴을 깊이 판 후 최진과 벽주는 각각 일천 군마를 거느려 대진 뒤에 매복하고, 최완은 이천 군을 거느려 북군의 의복과 깃발을 같이 하여 원양성 북문 밖에 매복하였다가 삼경 후 북병에게 패한 체하고 북문을 열라 하며 급히 들어가 수성장을 베고 나와 장임을 막으라 하고, 최경은 일천을 거느려 땅굴 좌우에 매복하고 차일 야심한 후 대전에서 불을 놓으니 화광이 충천한지라. 장임이 불 일어남을 보고 최완 등의 내용이라 하여 부장 한양으로 성을 지키오고 스스로 군사를 재촉하여 크게 고향하고 짓쳐 들어가더니 이윽고 장임의 전군이 날날이 땅굴에 빠지며 일성 대포 소리에 사면 북병이 일어나니 북군이 불의지변을 만나 사방으로 흩어지며 죽는 자 또한 부지기수라. 장임과 원평이 겨우 도망하여 원양성으로 달아나니라. 차시 최완이 본진에 불 일어남을 바라보고 원양 북문에 나아가 대호

[A] (大號) 왈,

“우리 북한(北漢) 패군이니 빨리 문을 열라.”

하니 한양이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문을 쾌히 열거늘 최완이 급히 군을 몰아 짓쳐 들어가니 한양이 대경하여 대적하다가 최완의 창을 맞아 죽은지라. 최완이 승세하여 서문으로 충돌하여 나오니 장임이 자주를 맞아 십여 합을 싸울새 장임의 기운이 쇠진하여 달아나거늘 문득 벽주 고성 왈,

“장임 적자는 단지 말라.”

하며 활을 한 번 당기어 장임의 어깨를 맞추니 장임이 몸을 번드쳐 말에서 떨어지매 최경이 달려들어 장임을 생

포하여 돌아가거늘 원평이 대로하여 말을 놓아 자주로 더 붙어 교전하여 십여 합에 이르러는 자주의 칼이 번듯하며 원평이 탄 말이 거꾸러지니 원평이 말에서 내려 할 일 없어 항복하는지라.

- 작자 미상, 「옥주호연」 -

* 득지지추: 기다리던 때를 얻게 된 때.

3.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표출하고 있다.
- ② 과장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인물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를 통해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4.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양'은 원양 북문을 개방하여 북군의 승리에 기여하고 있다.
- ② '유생'은 '삼소저'의 행동을 단속하지 못한 '왕씨'를 책망하고 있다.
- ③ '왕씨'는 '삼소저'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 ④ '삼소저'는 천하가 어지러움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장임'은 '원견'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명주'와 '최완'을 환대하고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된 효는 학문과 무예에 힘써 입신양명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여성에게 요구된 효는 규방에서 예절을 익히는 것이었다.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들은 이러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남성 영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 ① 삼소저가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꾸준히 연마하는 것에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엿볼 수 있군.
- ② 삼소저가 장원공주의 업적을 언급하는 것에서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효에 대해 알 수 있군.
- ③ 삼소저가 여자의 도에 대해 설명하는 왕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 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벽주가 한 번 쏜 화살에 장임이 말에서 떨어진다는 것에서 여성 주인공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나는군.
- ⑤ 삼소저가 최완, 최진, 최경과 함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서 남성 영웅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 영웅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6. a와 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b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a에는 대화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b에는 대화 상대방을 칭송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a에는 대화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b에는 대화 상대방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④ a에는 대화 상대방과 진실로 협력하려는 의도가, b에는 대화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a에는 대화 상대방에게서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b에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9. <보기>는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글의 일부이다. <보기>의 글쓴이가 읽글을 읽고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결국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수출로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판 돈으로 식량을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에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다. 세상 물정 모르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식량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자동차 판 돈을 다 쏟아 부어도 충분한 식량을 수입하지 못할 때가 온다.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름한 집에서는 살 수 있지만 먹을 것이 부족하면 살 수 없다. 생존을 위한 최소량의 식량이라도 우리 손으로 직접 생산해야 한다.

- ① 가능한 한 많은 식량을 수입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국제 식량 시장의 변동을 예측하여 농산물 수출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 ③ 국내 농축산업 분야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겠습니다.
- ④ 주요 농축산 생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유통망을 정비하고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 ⑤ 제조업 분야에 이익을 재투자해서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0.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쟁을 통해 관련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 ②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차단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 ③ 당사국들의 배타적 호혜 조치로 실질적인 이익을 높여 준다.
- ④ WTO 다자협상에 비해 단기간에 합의점을 이끌어내기가 쉽다.
- ⑤ 다른 나라 사이의 협정으로 인한 반사적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전학자들의 최종 목표는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세포 내 차원에서 유전병을 치료하는 것을 ‘유전자 치료’라 일컫는다. ‘유전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DNA의 특성을 이용한다.

DNA는 두 가닥이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진 분자이다. 그런데 이 두 가닥에 늘어서 있는 염기들은 임의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쪽에 늘어난 염기에 따라, 다른 쪽 가닥에 늘어난 염기들의 배열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한쪽에 A 염기가 존재하면 거기에 연결되는 반대쪽에는 반드시 T 염기가, 그리고 C 염기에 대응해서는 반드시 G 염기가 존재하게 된다. 염기들이 짝을 지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선택적 특성을 이용하여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 찾아낼 수 있다.

유전자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첫 번째 도구는 DNA 한 가닥 중 극히 일부이다. ‘프로브(probe)’라 불리는 이 DNA 조각은, 염색체상의 위치가 알려져 있는 이십여 개의 염기들로 이루어진다.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성으로 인해, 프로브는 자신의 염기 배열에 대응하는 다른 쪽 가닥의 DNA 부분에 가서 결합할 것이다. 대응하는 두 가닥의 DNA가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교잡’이라고 일컫는다. 조사 대상인 염색체로부터 추출한 많은 한 가닥의 염색체 조각들과 프로브를 섞어 놓았을 때, 프로브는 신비스러운 정도로 자신의 짝을 정확하게 찾아 교잡한다.

두 번째 도구는 ‘겔 전기영동’이라는 방법이다.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핵산 등 많은 분자들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전기장 속에서 각 분자마다 독특하게 이동을 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분자량, 각 물질의 전하량이나 형태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전기영동법이다. 이를 활용하여 DNA를 분리하려면 우선 DNA 조각들을 전기장에서 이동시키고, 이것을 젤라틴 판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분리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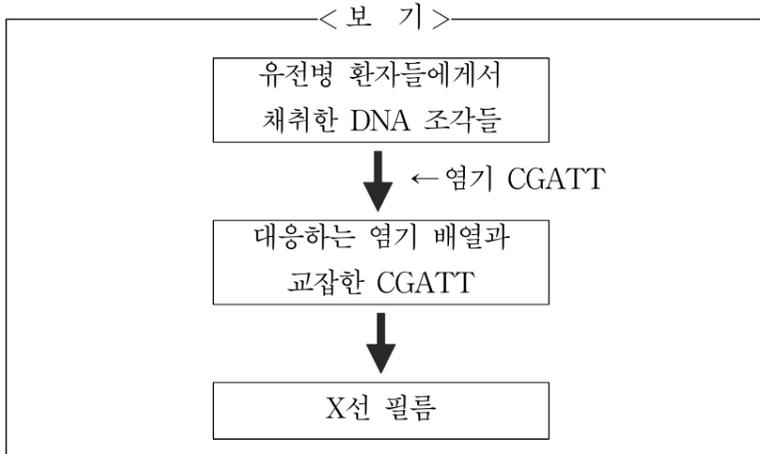
이러한 조사 도구들을 갖추고서, 유전학자들은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추적하는 데 나섰다. 유전학자들은 먼저 겔 전기영동법으로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로 의심되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존재하는 프로브를 건강한 사람에게서 떼어내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서 떼어낸 프로브에 방사성이나 형광성을 띠게 하였다. 그 후에 유전병 환자에게서 채취한 DNA 조각들과 함께 ㉡ 교잡 실험을 반복하였다. 유전병과 관련된 유전 정보가 담긴 부분의 염기 서열이 정상인과 다르므로 이 부분은 프로브와 교잡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교잡이 일어난 후 프로브가 위치하는 곳은 X선 필름을 통해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이로써 DNA의 특정 조각은 염색체상에서 프로브와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대단한 진보를 이룬 것 같지 않지만, 유전자 치료는 최근 들어 공상 과학을 방불케 하는 첨단 의료 기술의 대표적인 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DNA 연구 결과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 절망적이라고 여겨 온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11. 밑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전자의 종류와 기능
- ② 유전자 추적의 도구와 방법
- ③ 유전자 치료의 의의와 한계
- ④ 유전자 치료의 상업적 가치
- ⑤ 유전 질환의 종류와 발병 원인

12. [A]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염기 CGATT’는 프로브에 해당한다.
- ② ‘염기 CGATT’는 GCTAA라는 염기 배열과 교잡한다.
- ③ ‘X선 필름’ 위에 놓는 이유는 위치를 검색하기 위한 것이다.
- ④ 겔 전기영동법으로 ‘유전병 환자들에게서 DNA 조각들을 채취’했을 것이다.
- ⑤ ‘유전병 환자들에게서 채취한 DNA 조각들’은 방사성을 띠거나 형광성을 띠고 있다.

13.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출(索出)할 ② 반출(搬出)할 ③ 배출(排出)할
- ④ 각출(釀出)할 ⑤ 유출(流出)할

14. ㉡을 하는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약 프로브가 사라진다면, 이 부분은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② 만약 프로브와 교잡하지 않는 DNA가 발견된다면, 이 부분은 정상적인 유전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③ 만약 프로브와 교잡하는 DNA가 발견된다면, 프로브가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부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④ 만약 프로브와 교잡하는 DNA가 발견된다면, 이 부분이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부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⑤ 만약 프로브와 교잡하지 않는 DNA가 발견된다면, 이 부분이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부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5~1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봄날이 더디 흘러 빠꾸기가 보채거늘
 ㉠ 동편 이웃에 따비* 얻고 서편 이웃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어 쥐 먹었고
 가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심었거늘
 한아한* 식구(食口) 이리하여 어이 살리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일하라
 죽 쑨 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로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말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짜리피 바랑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나라 빛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낼꼬
 ㉢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장초(蔞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지어미 배부르며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고
 벼들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걸려 있고
 시루 술도 버려두니 붉은 녹이 다 끼었다
 ㉣ 세시(歲時) 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친척들과 손님들은 어이하야 접대(接待)할꼬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많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야 여의려뇨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餞送)하여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四方)으로 가라 하니
 추추분분(啾啾憤憤)*하야 화를 내어 이른 말이
 ㉤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우락(喜怒憂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월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타이르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공혁(恐嚇)*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無情)한 세상(世上)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억지로 피하여 잔피로 여일려냐

하늘이 만든 이 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貧賤)도 내 분(分)이어나 설위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 -

- *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 * 한아한: 춥고 굶주린.
- * 짜리피 바람이: 둘 모두 잡초의 일종.
- * 장초의 무지: 『시경』의 한 구절로, '진필에 난 장초나무 가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남'을 뜻함.
- * 궁귀: 가난 귀신.
- * 추추분분: 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냄.
- * 공혁: 울러대어 꾸짖음.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궁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여음과 후렴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대립적 공간을 설정하여 이상 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영탄법을 활용하여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1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농사를 준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 화자가 처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③ ㉢: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다.
- ④ ㉣: 자신의 도리를 다할 수 없다는 화자의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화자의 궁핍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17.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즐거움이 있으니 가난해도 오히려 괜찮고
한가로움이 많으니 병이 있어도 또한 괜찮아라
향불을 사르다 보니 내리던 봄비 가늘어지고
시구 찾다 보니 어느새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골목이 외져 길은 이끼로 덮였고
창문이 없어 대나무로 울타리를 삼았네
명예와 이익을 따르는 저 사람들 우스워라
세월이 다하도록 바쁘게 달리기만 하네
- 김효일, 「만홍」 -

- ①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계절의 순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군.
- ②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자연을 동경하고 있군.
- ③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윗글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와 달리 타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군.
- ⑤ 윗글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와 달리 다른 대상과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가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